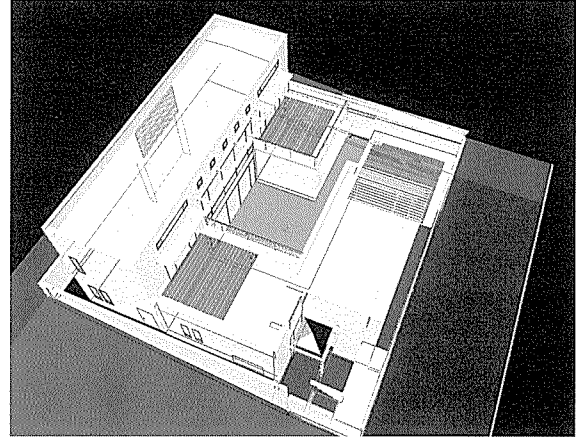


우리시대의 한옥 A Very Korean House of Our Time

정현화의 집 '필당' 에서 읽혀지는
우리시대 도시주거생활의 미학

민현식 / 건축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
by Min Hyun-Sik



필당

'우리는 여기서 집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설계하였다.'

미스 반 델 로에(Mies van der Rohe, 1886-1969)

시대를 거처오면서 우리의 주택은 변신을 거듭해 왔고,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가깝게는 지난 50년 급격한 변화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거형식과 그것의 변화는 바로 그 시대를 지배했던 가치관과 그 가치관의 변화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도 대부분의 도시인들

'We are not merely designing a house here, we have designed a new life in a new world.'

Mies van der Rohe, 1886-1969

Our houses have changed through time and in this century where urbanization has speeded up, especially in the last 50 year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rogress has been prominent. A type of house and its changing surely reflects the thought and ideas of that time and development.

The 'urbanized Korean traditional houses' which had been prevailing up to the 1960's are barely catching on to that string of traditional life style and mentality. But now they have become such a rare species that we would have to put them in to field of national security. Till this moment a wise solution of working out the problem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has not been found. It has become an antique for those who like to wander around the alleys for something interesting and peculiar.

이 선호했던 '도시형 한옥'은 우리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정신을 겨우겨우 연명하듯 이어 왔지만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어서 보존해야할 문화재급으로 격상(?)했지만 보존과 개발의 극단적인 대립의 현장으로 아직 지혜로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뒷골목을 뒤지는 몇몇 건축가나 호사기들의 복고취향 또는 골동취미같이 취급되고 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불어닥친 근대화 바람은 그때까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서구취향이 대중에게 밀고 들어와서 한동안 우리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꿈꾸었다. 언덕 위 숲속의 선교사집 같기도 하고, 이발소그림에서 흔히 등장하는 호수가 뽕죽지붕 집 같

Westernization, which was the luxury for the rich, at some time became a sudden popular thing that came into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dreamt of 'a picture-like house on the green fields'. Everyone worked hard to achieve their dreams of a victorian house inside the woods or that sharp-edged house besides the lake. The thought about tradition was put to side at that moment. Those who developed the urban type Korean traditional houses were now focusing on the so called 'French Houses' or the 'mini two story houses' and easily met the demands of the people. Consequently, these types of houses filled our city and formed one to the most prevailing structure in the cityscape.

At these moments 'apartments' suddenly dominated all kind and has stayed as if it were the best solution for housing problems. In the last year Dong-a newspaper an article stated that the number of apartments has exceeded the

기도 한 이 집을 “내 집”으로 갖기 위해서 우리 모두들 모든 것을 걸고 일도 매진했었다. 이러한 다분히 이국정서(異國情緒)의 ‘그림 같은 집’이 우리의 집이 될 수 있는가는 질문은 유보해 둔 채, 한때 ‘도시형 한옥’에 재미를 톡톡히 본 주택개발업자인 집장사들 중 발빠른 이들은 재빨리 소위 ‘불란서식 집’, ‘미니 2층집’ 등을 창출(?)해서 서민들의 이 꿈을 달래주었다. 이 결과 70년대 이후 우리도시의 단독주택은 이들로 가득 채워졌었고, 우리의 도시풍경을 주도하는 건축물이 되었었다.

이런 와중에 주택공급의 해결사로 불쑥 수입된 소위 ‘아파트’는 우리의 도시주거문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지난 99년 7월 29일 동아일보의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이런 기사가 실렸었다. ‘아파트 가구 수 단독주택 추월’이라는 제목 아래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는 모두 464만여 가구로 전국 총 주택 1086만여 가구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마포아파트

반포아파트

근대적 의미의 아파트먼트 하우스 apartment house가 우리의 주택형식으로 도입된 1961

number of single houses.

These apartment houses, which are the consequences of economic profits and the logic of money, have constantly been criticized of its abnormal influences on society. It has been the main site of poor construction, and the main causes of the destruction of nature and the cityscape. Even there has been so many and constant complaints and criticism that apartments were not following the laws of living but the laws of money and vanity, They have outnumbered the traditional single building houses which had been prevailing for such a long time in just forty years.

This fact makes us wonder if there isn't another alternative housing in today's society and whether these apartments have already colonized our way of living.

At this moment <Pildang> has opened up a new possibility. Pildang is an independent house inside the city. It is in

년이래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주거형식을 주도해 오면서, 주택공급에 혁혁히 기여한 공적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도시와 건축의 문제만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해 내기도 했었다. 환금성이 뛰어난 부동산으로서의 아파트는 그곳을 투기의 현장으로 만들었고, 주택공급촉진의 정책으로 채택된 입도선매 立稻先賣의 공급형식은 바로 건설회사의 양산으로 이어져, 끝없이 건설예산을 늘려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서 이 나라를 토건국가로 만들었고, 급기야 이곳이 부정부과 부실의 현장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돈벌이 욕심은 도시의 풍경을 망가뜨리며, 우리의 자연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장본인이라는 빈축을 한 몸에 받아왔다.

주택이 주거생활의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 예를 들어 자본의 논리나 허영의 논리에 의해 너무 경도되어 지배되었다는 앞에서 열거한 혹독한 비판들이 수없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채 못되어 전통적 주거형식인 단독주택을 앞질렀다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 볼 필요가 있다.

편리의 이름으로 단순 논리화한 기능주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계화시켰는가. 아니면 범 지구적으로 확산된 자본의 논리가 우리의 정신을 이미 완전히 식민지화한 것일까. 아니면 정작 이 시대의 도시주택에 아파트 이외의 적절한 대안은 아예 없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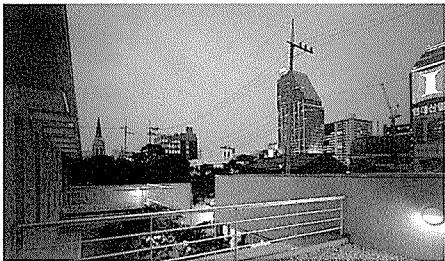
the midst of the never sleeping Teheran Avenue. This part of the city was designated as a housing limited area in the 1960s. But through these years many buildings have been stalking in and at this point there are even rumors that this area will soon be free from that law. So this tendency of breaking down those one or two story houses and replacing them with tall buildings could be said as the time following results.

But Pildang stands here rejecting the flow of time.

This house showed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house at the price of an apartment. It is definitely an economic building. But the point doesn't lie in here. This house also has the convenience that doesn't lack from an apartment. It has an adequate mechanic system to erase the worries of maintenance. The point isn't this convenience either. That as it is an independent house the values of an independent house is

이럴 때, <필당 匹堂>은 우리에게 한 신선한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필당>은 도시 속의 단독주택이다. 이 집 어디에서나, 특히 2층 방의 테라스를 나서면 테헤란로를 메우고 서있는 초고층 오피스 빌딩의 불빛이 '테헤란로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연출한다. 이미 이 지역은 주택이 있기에는 너무 도시화되었는지 모른다. 60년대 도시계획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라는 법적 제한에 따라 때문에 나지막하게 지어졌던 주변의 '그림 같은' 주택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 둘 다른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고, 주거전용지역이라는 지역규제는 이 곳에서는 이미 전설같이 느껴져 곧 해제되리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필당

이런 상식을 역행해서 이곳에 <필당>이 서 있다. 이 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능성은 지금의 아파트 가격으로 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그리 비싸지 않게 지었으니 잠시 살다가 나중에 헐어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경제적 수지타산이 여기에 지금 이 집을 짓는

offered. You can smell the scent of earth, you could yell and scream as loud as you can without worrying about the neighbors, you can plant those beautiful flowers and healthy vegetables in the backyard, and especially that you are not living in one house that looks and functions exactly the same as who knows how many houses, which gives you the possibility of as original and personal home. This isn't the point either. In short the value of the house isn't that it has both the merits of an apartment and an independent house. Actually this house could be considered inconvenient in ways that you have to walk long distances and that functions are spread apart.

The values that we have to take in to mind is the values of a city house of this time and this land, which Pildang is trying to tell. This house strongly connects the mentality of our traditional houses and projects it into the values of this time accompanying the critical and analytical power of the architect.

뜻이 아니다. 또한 이 집이 아파트의 편리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관리에도 거의 신경 쓸 일이 없는 기계적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만도 아니다. 이 집이 단독주택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점, 땅의 냄새를 맡으며 산다거나, 아랫집, 윗집 신경 쓰지 않고 크게 떠들며 살 수 있다거나, 뒤란이나 앞뜰에 푸성귀를 일구는 전원적 향수를 달랠 수 있다거나, 무엇보다 모든 세대가 천편일률적인 벽돌 같은 아파트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맞춤형이란 점 때문만도 아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소위 아파트의 장점과 단독주택의 장점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집은 길게 걸어야 하고, 이곳 저곳에서 구태여 일을 벌이도록 채근하는, 어떤 관점에서 반 기능적인 집일 수도 있다.

우리가 정작 주목하여야 하는 이 집의 가치는 바로 <필당>이 말하려고 하는 '이 시대, 이 땅의 도시주택'이 가져야 할 덕목들이다. 이 집은 우리의 전통적 주택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이 시대의 정신에 투과하여 작가의 가치관에 의해 비관적이며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더욱 빛난다.

첫 번째 눈에 띄이는 것은 방들의 기능을 하나로 미리 지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흘려 놓고 있다.

이 집에서의 방 이름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름, 거실, 식당, 침실 등 하나만을 붙이기에는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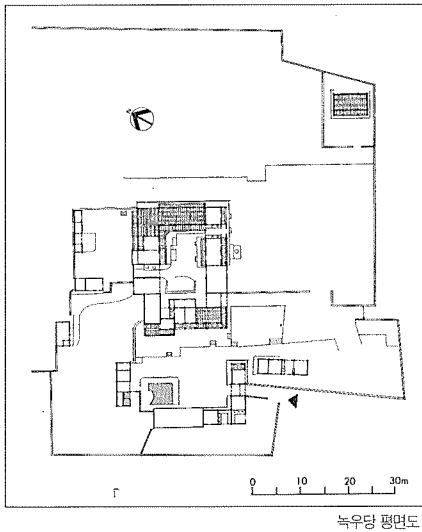
This is why this house shines amidst other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that the rooms are all scattered without definite functions named.

There are a couple of rooms that is hard to give those so common names of a room, such as, a living room, dining room, bedroom. A main room that has the programs of a kitchen, dining room, living room and a hallway and stairs(lets call it main room-1 for convenience in this essay) and the other main room that has the function of a parlor, library and work shop(main room-2) are those. In traditional architecture rooms are not named according to function. an-bang, gunneo-bang, daechungmaru, sarang-bang only tells us the location of the rooms, and when there are some devices granted it temporarily becomes a functional room. It seems that this kind of functional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houses has been translated or it seems as it has mixed the functional rooms normative in modern houses, the

하지 않은 방이 두엇 있다. 주방과 식당과 거실의 기능과 거기에 통로(복도와 계단)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주실(主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주실-1'이라 부르자)과 거실과 응접실, 서재 그리고 작업실의 기능을 다 가진 또 다른 하나의 주실(주실-2)이 그것들이다. 우리 전통주택에서의 방 이름은 기능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 안방, 건넌방, 대청마루, 사랑방 등은 단지 위치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고, 필요에 따라 약간의 장치를 가져와서야 그 방이 한시적으로 기능실이 된다.

이러한 전통주택의 기능을 미리 확정하지 않은 방법론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듯하기도 하고, 또는 근대 기능주의 주택에서의 거실, 서재와 응접실, 식



living room, dining room, kitchen, parlor, etc, altogether and then distributed. This would be the result of de-constructing the diverse functions of city life and then adequately transforming them into new realms. It is somewhat very interesting that it has followed the rules of traditional houses for the basic dividing tools. The former(main room-1) is the territory for women and the latter(main room-2) is the territory for men. So you could say each are the modernized an-chaе and sarang-chaе. They are facing each other equally with the ma-dang in between.

The second thing that attracts the eyes is the ma-dang of this house.

At this time, no one would be unsure to say that the most significant and fascinating characteristic of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is the ma-dang. Unlike the patio, atrium or the plaza/square in western architecture, our ma-dang is not predetermined in terms of function so that it possesses a

particular meaning when a particular activity or function is granted. And these activities and functions change. It is totally an empty space until a certain activity happens. So very ironically it is a very modern place possessing serenity, clarity, articulation, the potential of being filled up and filled with the possibility of being total.

당, 부엌 등을 함께 섞어서 다시 분배한 작업의 결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현대, 우리의 도시생활에 따라 주거 생활의 여러 기능들을 해체하고 적절하게 변용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재편해 놓은 작업의 결과이다. 기본적인 가름의 틀은 전통주택을 따르고 있음이 자못 흥미롭다. 전자(주실-1)는 여자의 영역이고 후자(주실-2)는 남자의 영역으로 현대적 안채와 사랑채이며, 이들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서로 대등하게 마주하고 있다.

두 번째 이 집에서 우리의 주목을 받는 부분은 마당이다. 우리 전통건축의 가장 중요하고 근사한 특질로 마당을 내 세우는 일을 이제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다. 서양건축에서의 중정patio이나 아트리움atrium, 그리고 광장plaza/square과는 달리 우리의 마당은 방들과 마찬가지로 미리 기능이 주어지지 않은 곳으로 때에 따라 어떤 특유의 기능 또는 행위가 도입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생활이나 활동으로 점용되기 전까지는 빈 채로 남아있는 절대공간이다. 그래서 조용함과 투명성, 명료함, 채울 수 있는 잠재력, 완성으로의 열림으로 가득 찬, 역설적으로 지극히 현대적 감각을 가진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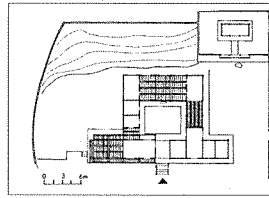
〈필당〉에서의 마당은 이러한 우리 전통마당의 공간적 감각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 하지만, 이

The ma-dang of Pildang has all of these features of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But it has many differences in the way the ma-dang corresponds spatially, visually and functionally with the surrounding rooms. It could be the inten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n urban house of only being able to have one ma-dang o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modern family relation. Rooms are placed three dimensionally so that when one sees the ma-dang from there one experiences multi-angle views. This can be seen clearly from the south-north section. Main room-2 looks down at the ma-dang about 1.35m

마당을 에워싸고 있는 방들과의 공간적, 시각적, 기능적 관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마당을 하나 밖에 가지지 못하는 도시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전시대와는 다른 현대적 가족관계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다.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방들에서 이곳, 마당을 내다보는 시점을 서로 달리 하도록 3차원적으로 배열한다. 이는 남북으로 자른 단면도로 명쾌하게 설명된다. 주살-2는 마당보다 1.35m쯤 높여서 마당을 내려다보게 한다. 마치 전통주택에서 사랑방과 사랑마당과의 공간적 관계의 재현으로 읽힐 수도 있고, 주살-1과의 적절한 관계 정립일 수 있다. 주살-1은 마당과 거의 동일한 레벨에 놓고, 마당으로 향한 모든 면을 마당으로 열어 놓아 이 둘이 거의 하나의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배려되어 있다. 전자의 관계는 관조적이고, 도의적(道義的)이며 가치론적이라면, 후자는 이것과 대조를 이루어 참여적이며, 기질적(氣質的)이고, 실리적(實利的)이다. 어떤 관점에서 주살-2는 유가적(儒家的) 수기공간(修己空間)일 수 있고, 주살-1은 치인(治人)의 공간일 수 있다.



관가정



관가정 평면도

above it. It can be seen as a revival of the spatial relation between the sarang-bang and the sarang ma-dang, or it can be seen as an adequate relation with main room-1. Main room-1 lies with almost the same level with the ma-dang and opens up all the planes that touches the ma-dang which enables these two to become totally one spatially. The former is a relation of contemplation, morals and valu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s volunteering, sensitive and practical relation.

In order to feel this duality a tree is planted. Unlike the two-dimensional ma-dang a tree is a three dimensional object changing its looks according to time. This could be seen as a mature ability as an architect and a deep affection for traditional architecture.

Thirdly, Every room in this house has an outer space of its own making a pair.

This is not the simple and tedious inner and

하나의 공간을 두고 이러한 이중적 관계를 절묘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곳에 배롱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평면적인 마당에 비하여 나무는 시점(視點)에 따라 그 형상이 달라지는 3차원적 오브제이며, 특히 꽃이 피는 낙엽수는 계절을 따라 그 변화의 폭이 크다. 이는 작가의 성숙된 건축가적 능력이기도하고, 전통건축에 대한 깊은 조예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 번째 이 집의 모든 방들은 그 방만이 가지는 고유의 외부공간과 함께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입이라는 이제는 이미 진부해진 근대건축 이상(理想)의 구현이라기 보다는 각 실별 생활의 자율성과 자족성을 부여하려는 욕구일 것이다. 이는 전통적 가족관계(family sense)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 주거생활 속에서 가족들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근대주택의 동선계획에 대하여 일단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각방들의 독자성을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면 이제 구태여 만나고 싶을 때 자신을 여는 현대적 개체의 인정이 이곳에 슬며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물어본다.

“현대의 로미오는 어디 있는가?”

네 번째 <필당>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공간조직의 특성이다.

outer space relation, it is the desire to give freedom and self content to each room. It could be a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family sense. The circulation plan of modern houses where the members of the family meet throughout living is accepted but there lies also a strong will to keep the individuality of each room. So to say, the tendency of opening oneself only when wants to is seen. Then we ask,

“Where is the Romeo of this time?”

Fourth, Pildang has a spatial organization that can correspond to the changes of future. In other words, it has an extra space that is able of transitional change.

Even though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on the prediction of the change of today's city life, it is much faster than our predictions. As the situation is this, it is hard to leave an architectural space with one function, the tendency of an indeterminate, indefinite, neutral, uncommitted and free space is

일명 과도기적인 변화가 가능한 덩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우리의 도시주거생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많은 연구성과를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변화의 속도가 지극히 빠르다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의 건축공간이 하나의 기능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점점 불확정적 indeterminate이고, 정의될 수 없으며indefinite, 중립적 neutral, 미지정의uncommitted 자유로운free 공간으로 남겨두려는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 집에서의 몇 부분은 각각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주실-2는 당장이라도 재택근무(在宅勤務)가 가능한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스튜디오 하우스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집 전체가 필요에 따라 쉽게 변환할 수 있는 공간조직과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적 직업인을 위한 사무실이나 고객 서비스를 위한 시설이외에 외국공관(公館residential office), 소규모 미술관이나 공연장 등 도시내의 소규모 문화공간, 예술가의 작업+전시(공연)장 등에 적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이 집과 도시 또는 마을과의 관계는 성채만큼이나 완벽히 단절되어 있다. 현대, 도시주거생활에서의 공동체community sense는 이미 공간적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something that is natural nowadays.

In this point there are some places in this house that can be put as individual areas. Especially main room-2 shows the immediate possibility of being used as an independent office possessing the idea of a studio house. Furthermore this house has the spatial composition and scale that can transform by need. For example, it could be appropriate for an office for a professional, a foreign residential office, a small urban culture facilities like a small museum of performance hall, and a workshop and exhibition for an artist.

Lastly, the relation of this house and the outer neighborhood or city is perfectly closed like a castle. It seems as if it is saying that community sense in urban housing life is no longer spatial in this time. Our traditional village community was only valid in the past agricultural life style and is only a sentiment that we should let go of. The era we live in no longer limits the

우리의 전통적인 공간적 공동체인 마을공동체는 농경사회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이미 근대산업시대에서까지 그것에 연연하는 센터멘탈리즘을 경고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현대는 새로운 공동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장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이미 극복한지 오래다. 세계화의 물결은 전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려는 시도가 급속히 행해지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이질성과 독자성이 점점 강조되어 서로 변별되는 새로운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 또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이들 모두가 전통적 지역공동체를 빠르게 해체하고 시간과 공간을 극복한 새로운 공동체들을 창조해 내고 있다. 인터넷이 그것의 속도를 광속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깊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데도 길게 질문이 남는다.

도시에서의 주거생활 공동체는 이제 다른 수단에 맡기고, 이 시대의 도시주택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설계하여야 할 전환기를 맞은 지금, <필당>에서 성취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가치는 우리 도시주택에 대한 의식의 변혁과 더불어 새로운 미학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community we live in by time or space. Globalization, which intends to connect the whole world, and another tendency of trying to strengthen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individuality of each country is both happening at once. These two tendencies are de-constructing the traditional community values and new communities are being created. And the internet is the main one that is speeding this up.

But still there remains a question.

Do we now have to leave home-life community to other mediums and has urban houses of this time become just an oasis in the desert?

In this transitional time where we have to design a new life in this new time Pildang has accomplished several values worth scrutinizing. This values will become the constant energy that will allow change in the way we see urban houses and offer new aesthetics.